

서울시 “집 근처 주유소에서 택배 찾으세요”

여성안심택배함 주유소로 확대

현대오일뱅크와 업무협약
신사현대점 등 5곳에 설치
“민·관 정책협력 우수 사례”



주유소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함. /서울시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이제 주유소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 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5년 반동안 총 198만명이 이용했다.

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되는 5개 주유소는 현대오일뱅크 ▲신사현대 ▲사당셀프 ▲구로셀프 ▲관악셀프 ▲중원점이다. 직영주유소를 기준으로 판매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성안심택배는 거여1동 주민센터와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총 2곳을 제외한 213곳에서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단, 물품보관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에 1000원의 연체료가 발생한다.

처음 5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6월 210곳

(4119칸)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5개소가 추가돼 총 215곳(4214칸)에서 운영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6년부터 현대H몰, NS몰, 11번가, GS SHOP 등 총 9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의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록을 등록했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대구시,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 광산구청, 경기도 성남시 등의 시·도가 벤치마킹해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여성안심택배는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민·관 정책협력의 좋은 사례다. 향후 기업과 협력해 주유소 등 민간이 소유한 공간에 택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환경오염 배출 꼼짝마’... 집중 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자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사업소는 7개팀, 15개반, 30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도내 7개 권역(공업단지, 남부, 남서부, 동부, 서부, 북부, 동부) 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시 군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관계자들을 전담 단속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대기분야는 ▲미세먼지다량방출사업장(소각장, 고형연료(SRF)사용 사업장)에 대한 타겟점검 ▲대기 및 악취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시군합동 단속 ▲무허가 환경배출 특별단속 ▲아스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운영 여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드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폐수공동처리장 및 염색, 화학업종 등 하천 방류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수 무단 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7개권역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대학생·2년 내 미취업 졸업생 대상
대상자 나이 무관... 내달 28일까지

서울시는 2월 28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다.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하다.

시는 서울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공고일 이전 6개월간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했다. 재학생의 경우 기존 1회 신청 후 졸업 때까지 연속으로 지

원해주던 것을 서울 거주 확인을 위해 매 회 신청으로 변경했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별 지원금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자액 조회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자액을 5월 중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한다.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한다.

시는 향후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사상 최악 미세먼지’...차량 공회전 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15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시 차량공회전감각과 직원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미래융합관 설계공모, 서울시립대 당선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내 이공계 학부 전용공간인 ‘미래융합관’ 설계 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오드투에이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작은 주변 시설물간의 접근 동선이 합리적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융합관에 배치되는 3개학부(과)에 대한 면밀한 층별 계획으로 효율적인 내부 공간을 조성했다고 심사위원들은 밝혔다.

작품은 단조로우 수 있는 입방체 공간의 중심을 비워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되

는 보이드공간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연채광과 환기가 원활한 환경도 확보했다.

시는 2~5등 작품으로 ▲2등 에스이에이 건축사사무소 박흥태 ▲3등 (주)서로 아키텍츠 김정민 ▲4등 (주)디자인랩스튜디오 박동주 ▲5등 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 정기정을 선정했다.

심재현 심사위원장은 “미래융합관 건립을 통해 이공계 학부·과의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분야를 넘나드는 열린 지식과 기술·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여성경력단절, 전방위 정책으로 근절”

전문가 고충상담·커리어 코칭
교육부처 취업 후 사후관리도
기업에 경단녀 고용 장려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

경기도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자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대책을 세워 주목된다. 우선, 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비롯, 생활할 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서며, 상담사 등 8인의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이 일하는 여성의 고충상담 및 커리어 코칭을 집중 지원하고,생활할 균형 등을 주제로 희망 기업과 지역의 위경감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병행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편의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인다.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과 같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이들과공급업체를

76.6%(‘17년)가 40대 이상에 편중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새일센터를 취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명실상부한 취업지원원스톱종합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비하고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3종을 추진해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코딩과정,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웹디자이너 실무 프로젝트 등 전문분야 및 신 유망직종으로의 진입을 돕는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HACCP 전문인력 및 실버건강관리사 양성,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등 각 지역특성과 직종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새일여성인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 240원, 인턴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세종문화회관 “최대 40% 할인” 공연패키지 티켓 판매

세종문화회관은 17일 오후 2시부터 ‘2019 세종시즌’ 공연 패키지 티켓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즌 패키지는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 맘대로 패키지’

▲만 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 패키지’ ▲공연 애호가를 위한 ‘케렌시아 패키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를 테마로 한 공연을 묶은 ‘광화문 패키지’ ▲새롭게 조성된 세종S씨어터의 공연 5편을 모아보는 ‘S씨어터 패키지’ 등으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